

월요논단



김영호 중앙대 명예교수·한국박물관학회 명예회장

‘아시아’의 재발전 시대

는데 기여한 책이다. 아시아는 거대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집합체이다. 지구 육지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세계인구의 60%가 거주하는 대륙, 북극 설원에서부터 적도의 열대 정글에 이르는 자연환경, 수많은 인종, 생태, 언어, 문화가 공존하는 터가 아시아다. 티그리스에서 인더스 그리고 황허에 자리 잡은 인류 문명들의 발원지이자,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세계의 주요 종교도 모두 아시아에서 시작됐다. 아시아는 이러한 거대하고 복합적이며 역동적인 환경을 아우르며 깊은 명상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가족 공동체라는 특유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왔다. 시대가 바뀌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대륙을 무장시키

면서, 아시아는 착취와 왜곡의 대상으로 변질됐다. 구미 열강의 침탈, 제국 식민지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는 비단 동북아시아 것만이 아니었다. 증기기관에서 전기동력 그리고 컴퓨터 기술로 대변되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지구촌의 질서를 재편했다. 뒤늦은 아시아의 역동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성취 이면에 숨겨진 역사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은 여전히 아시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환경과 생태는 위협받고 있으며 극심한 빈부 격차는 아시아의 전통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상황은 다시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보테크놀로지 시대,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필

요한 것은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과 융합을 위한 성찰의 힘이라는데 동서의 인문학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아시아’는 ‘해가 뜨는 곳’을 뜻하는 아카드어 ‘아수(Asu)’에서 유래했다 한다. 비판적 자기성찰을 갈구하는 구미지역의 지식인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아시아 문화가 지닌 화해와 공존의 DNA에 열광하고 있다. 아시아는 인류 문명의 요람이자 다양성의 공간이다. 아시아의 힘은 복합적 환경을 아우르는 깊은 명상과 자연에 근거한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미래를 동양사상에서 찾고 있는 현대 물리학자 프리츠프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노정을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세월의 흐름 속에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아시아’라는 단어다. ‘제4차 산업혁명’ 혹은 ‘문명사적 전환기’로 불리는 21세기, 아시아는 이전의 아시아와 다른 성찰을 제공하는 의미로 다가온다. 오늘의 아시아란 제국의 식민지나 착취의 대상 등으로 설명되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연대, 화해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문화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가 일찍이 펴낸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에 대한 시선과 해석에 비판의 정을 열어놓

열린마당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이 농업의 활력소가 되길



이미숙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체험 농장 조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4개 분야 20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역량강화 컨설팅과 교육 지원으로 사업장 운영 내실화를 꾀하고, 새로운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에 주력해 소득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제주 관광객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치유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어, 건강진진 및 회복을 돕는 치유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우리의 삶과 문화를 지켜온 공동체의 기반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이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진정한 휴식과 함께 새로운 경험 및 추억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촌 여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각계각층이 농업·농촌을 1차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가공(2차산업), 문화·체험·관광(3차산업) 등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의 장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공익적 가치 창출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융복합(농의소득) 활성화 사업장 조성,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치유

뉴스-in

원희룡,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 등판할까

문대림·위성곤 의원 공천시

○...오는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현역 국회의원이 확정될 경우 치러지게 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등판 가능성이 제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 전 지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렇다할 정치적 행보 없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도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에 현역 국회의원의 문대림·위성곤 의원 중 한 명의 공천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원 전 지사를 보궐 선거에 전력공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부 야권 지지자들의 전망. 한라일보는 원 전 지사에게 직접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묻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기는 꺼져있는 상황. 부미현기자

절물휴양림 4개 구간 정비

○...절물생태관리소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절물자연휴양림 주요 탐방로인 절물오름·장생의숲길·숲속의집·너나들이길 등 4개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번 정비사업은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탐방환경과 고품질의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시는 탐방로 내 노후한 계단과 난간, 데크시설 등 안전 저해요소인 훼손된 구간을 집중 보수할 방침.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공사 기간 중 일부 구간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탐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 백궐기자

사설

국제 유가 불안 속 에너지 관리 빈틈 없어야

미국과 이란 간 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제주지역 석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에너지 비축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기상철을 갈구하는 구미지역의 지식인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아시아 문화가 지닌 화해와 공존의 DNA에 열광하고 있다. 아시아는 인류 문명의 요람이자 다양성의 공간이다. 아시아의 힘은 복합적 환경을 아우르는 깊은 명상과 자연에 근거한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미래를 동양사상에서 찾고 있는 현대 물리학자 프리츠프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노정을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요금과 관광버스 운행비, 항공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관광객의 여행 비용 부담을 키우고 관광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농수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농업용 난방유와 어선 연료비 상승은 생산비와 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농수산물 가격 경쟁력과 농어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제주처럼 섬 지역은 물류 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한 편승 인상이다. 실제 수급 상황과 무관한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도민 생활비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 비자립도가 높고 도민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관광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 상승은 렌터카

“비축물량 폐기하라” 처절한 양파농가 절규

수확을 만끽해야 할 양파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수입 양파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산 양파가격이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사다. 제주도가 관측한 2026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704ha로 평년보다 0.6% 감소했다. 재배면적이 줄었는데도 수확을 앞둔 양파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달 제주 양파 도매가격은 상품기준 kg당 1048원으로 전년 1455원과 비교할 때 38.8% 급감했다. 햇양파가 곧 출하되지만 현재의 가격 흐름을 감안하면 가격반등은 기대안망이다. 이에 따라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양파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양파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국내산 양파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붕괴됐다며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살인적인

민간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지부는 이어 올해산 양파 수확 이전에 정부 비축물량을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하고 폐기하는 조치 없는 가격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수입 양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부는 정부 비축양파 즉각 폐기와 양파가격 kg당 1500원 보장 정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양파가격 폭락은 정부의 수급정책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내산 양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민간 수입양파가 시장을 잠식하고 양파 비축사업도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진행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양파에 대한 단호한 폐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생산자와 농업, 유통인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양파 수급정책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명☆택일☆ 사주☆운세 상담 -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